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교회와 마지막 것들,

세션 2, 교회의 주요 구절과 사진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교회 교리와 최후의 일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교회의 주요 구절과 그림입니다.

우리는 교회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 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배우고 헌신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간략하게 조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맥락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주요 구절을 살펴보고 구약 성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주요 구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 설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왕국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산상설교의 행복론에서 예수님은 그의 공동체의 가치관을 재조정합니다. 그의 백성은 부, 권력, 명예 또는 편안함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왕국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12절의 행복론. 예수님은 이러한 축복을 패턴으로 표현하십니다. 첫째, 축복받은 자, 특별한 특성으로 표시된 자,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를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 그의 왕국 공동체, 그리고 참된 영성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표시된 영성을 살아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회개, 겸손, 참된 의로움, 성실,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에 대한 박해를 갈망하는 영성을 살아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축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상속받을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자비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그들의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행복은 같은 포괄적인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여섯 가지 행복은 미래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미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축복이 지금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주로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국의 우리 공동체에 축복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것은 천국이며, 천국의 더욱 완전한 최종적 표현을 기다리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선포된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스럽고 포괄적인 축복이며, 지금 맛보고 나중에 완성되며, 땅과 하늘의 상속, 위로, 만족, 자비, 하나님의 비전과 아들됨을 포함한다. 스토트, 산상 설교의 메시지.

성경은 오늘날에도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왕국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확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은 참된 의로움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내적이며, 외적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백성을 전체적인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6:1-18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청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 영적 훈련인 헌금, 기도, 금식의 예를 들어 자랑스러워했던 세 가지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빛 속에서 모든 삶을 사는 것이 왕국 기도의 중심 초점입니다. 마태복음 6:19-34에서 예수님은 세상적 보물과 왕국적 중요성을 대조하면서 왕국적 가치를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판단주의를 뒤집고 황금률을 전파하면서 관대한 사랑의 중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참된 의로움을 소유하고 참된 영성을 실천하는데, 이는 왕국적 성격, 전인적 거룩함, 진정한 예배, 왕국적 가치, 관대한 사랑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 매우 열광하고 그러한 영성을 실천하는 데 헌신하는 공동체는 자기 중심적이고 사회의 나머지와 분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백성의 영성과 사명을 엮어냅니다.

실제로 영성은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제자도와 선교는 에크하르트 슈나벨의 초기 기독교 선교인 예수와 열두 제자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부름을 받고 파견되며, 왕국의 길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르도록 파견됩니다.

그의 왕국 공동체의 본래적인 선교적 성격은 그가 그것을 땅의 소금이 되라고 명령할 때 두드러진다(마태복음 5:13)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14절). 이러한 이미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인간의 힘과 명예가 아니라 영적 빈곤, 애통, 온유, 굵주림, 자비, 평화, 박해와 연관시키는 행복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근본은 거룩한 왕국 공동체로서의 독특성이다(3~12절).

세상은 쇠퇴하고 있고, 예수의 사람들은 소금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 예수의 사람들은 빛입니다. 두 이미지 모두 왕국의 독특성을 가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과 복음 증거라는 공동체의 사명을 명확히 합니다.

마태복음 16:16-19.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원칙에 동의한 유명한 로잔 언약에는 이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부르셔서 온 세상에 온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오실 때까지 충실하고, 긴급하게, 희생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기로 결심합니다. 마닐라 선언문, 로잔 운동 웹사이트.

마태복음 16:16-19는 예수와 교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는 죽음에서 부활한 세례자 요한, 구약성경 말라기 4:5에 예언된 엘리야, 그리고 마태복음 16:14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가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는 그들에게 그룹으로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종종 리더 역할을 하는 시몬 베드로가 그들을 대신하여 대답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16. 예수님은 베드로가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신성함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시하셨습니다, 17절.

예수가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후에야 그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것이다. 예수는 베드로와 록 사이에서 말장난을 하며 베드로가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DA 카슨은 통찰력이 있다.

로마 가톨릭 해석의 극단에 대한 개신교의 반응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이 록을 베드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여겼을지 의심스럽다. 마태오의 주석, 카슨의 마태오에 대한 주석, Expositors Bible Commentary 시리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주석과 함께 보관되어 있으므로, 시놉틱 복음서이다.

저는 Carson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핵심은 종종 간과됩니다. 인용문,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인용문 닫기, 18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야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자 메시아로 주장합니다. 메시아 공동체를 건설한 분이며 그의 백성의 주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은 죽음을 가리키는 구약성서 표현 입니다 . 욥기 17:16, 시편 9:13, 이사야 38:10.

지옥의 문은 예수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죽음에 대한 구약의 그림입니다. 욥기 17:16, 시편 9:13, 이사야 38:10.

예수의 교회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때문에 그의 교회는 대적, 죽음을 포함한 적들에 대해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마태복음 16:19).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제자들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배제할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하늘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전 행적을 반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점점 더 이해하게 되면서 복음 선포를 통해 그의 왕국을 확장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보편적이고 지역적인 용어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어떤

종류의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반면, 복음과 열쇠의 선포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37-47.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갔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형제들, 유대인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멀리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을 위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또 많은 말로 증거하고 계속해서 권하여 말했습니다.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 약 3,000명의 영혼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에게 경외감이 임했고 사도들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소유물과 소유물을 팔아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함께 성전에 참석하고 집에서 빵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관대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들의 수에 더해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청중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오른편으로 높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행 2:36).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듣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듣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세례를 받으라고 권고합니다(행 2:38). 그는 복음이 그의 듣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인용문입니다.

39절, 3,000명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41절에서 누가는 그들이 교회로서 함께 하는 활동을 요약합니다. 인용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고 기도하는 교제에 전념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곧 교회 생활의 핵심에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로서 서로의 삶에 참여합니다(요일 1:3).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로서(요일 1:3) 서로 간의 교제, 즉 물질적 소유물을 나누는 것(행 2:44-45)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자발적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초기 교회는 42절에서 빵을 떼는 것에 전념했는데, 이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님의 만찬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식사를 공유합니다. 46절, 사도행전 20장, 7절은 일요일 예배에서 주님의 만찬을 지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주님의 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자들은 기도에 헌신하는데, 이는 그들의 공동 생활에서 귀중한 부분입니다.

초기 교회는 함께 모여 식사하고, 기쁨과 찬양, 불신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46-47절). 고린도전서 12:14-31. 구원에서 성령은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시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2:12, 13. 즉,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14.

따라서 덜 눈에 띄는 교회 회원들은 눈에 띄는 회원들만큼이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15, 16절).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각 지체의 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17절)

. 바울은 신성한 설계의 핵심 원리를 제시합니다(고린도전서 12:18).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 지체들을 배열하셨고, 각자는 그분이 택하신 대로 배열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넌 후, 그들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고린도전서 12:21-24).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몸에 분열이 없도록 명령하셨고, 몸 안에 분열이 없도록 하셨으며, 25절, 그리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체들이 서로의 고통에 참여하고 다른 지체들이 존중받을 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26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같은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치로 손가락을 때리면 온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상을 받고 손으로 받는다면, 당신의 발가락도 참여하고, 당신은 상을 받기 위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즉, 성경은 교회를 지도자와 규율 등이 있는 조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 살아있는 것,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인적으로는 그의 지체라고 반복합니다(27절). 그는 은사를 중요성에 따라 명령하고 고린도인들에게

이 명령에 따라 은사를 구하라고 촉구합니다. 분명히 사도, 선지자, 교사가 가장 중요하고 방언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28절).

그런 다음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18절에 언급된 대로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은사는 없다는 요점을 강조하고 인용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인용문이지 18절이 아닙니다. 각주 18.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주석, Ciampa와 Rosner의 *고린도전서* 609 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형제 자매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요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12에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인간의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몸의 모든 지체는 많은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으로 우리는 모두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의 마지막에서 그는 모두 사도이고, 모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는 모두 사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두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끝까지 따르면,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 통역하지 않습니까? 모든 답변에 '아니오'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답변에 대해 그리스어 조사 *may*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데 사용 됩니다 .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그 영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진 은사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은사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받지만, 모든 사람이 가진 하나의 은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것은 신의 의도입니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속으로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영적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오순절주의의 일체성입니다. 구원을 위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복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집회와 세계 오순절주의의 경건한 신자들은 그것이 일체성 오순절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권능과 봉사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도 오류이며, 성경 해석에 헌신하는 기독교 신학자로서 지적해야 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남겨둡니다(31절). 저는 여러분에게 훌륭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ESV).

이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는 다음 장을 이 주제에 바치는데, 이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구약이 명령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 주시는 사랑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레위기 19:18을 보세요. 저는 기억에 의존하고 싶지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2:11-22. 우리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도 읽어볼 만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한때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손으로 육신에 행한 할례받은 자로 불리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그들의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연방에서 소외되고, 약속의 언약에 낯선 존재이며,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곤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이는 그가 친히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의 육체로 원수의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무셨음이니라. 그는 율례로 표현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두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해시키시어 원수를 죽이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파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를 전파하였습니다. 한 영으로, 미안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둘이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영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며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인용하자면, 분리되지 않은, 그리스도 없이 분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었습니다(에베소서 2:12).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합하셨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의 그의 속죄적 죽음을 통해 그에게 가까이 있습니다(13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는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지만, 그는 주도권을 잡고 그의 아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화해 사역은 또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우리를 둘로부터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었습니다(14, 15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그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17절). 둘 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고 삼위일체와의 관계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두 집단은 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18절). 그리스도의 화해적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이방인 신자들은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왕국의 동료 시민이며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에 속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19절,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집과 성전 이미지를 사용하여 교회에 대해 확장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방인을 그의 가족으로 편입시키고 또한 그들을 그의 집안의 일부로 만드십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모퉁잇돌이 있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기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퉁잇돌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입니다(20절).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와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성경적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성경은 교회를 여러 그림이나 이미지, 여러 은유나 모티프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 일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성전,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찬양합니다.

골로새서 1:18, 그는 또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골로새서 1:18. 몸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18절. 부활하신 그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새 하늘과 땅은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멸성체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불멸의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로마서 8:10-11). 그의 머리됨은 또한 그가 교회의 궁극적 권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골로새서 2:19).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 세상에서 순종해야 할 분.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서로 한 몸으로 합치시는데, 고린도전서 12:13에서 보았듯이요.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고린도전서 12:27). 그리스도는 교회와 연합되어 있지만, 구별됩니다. 그는 항상 머리이시고, 우리는 항상 그 몸입니다.

몸의 이미지는 믿는 자와 지체 사이의 관계를 전달하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마서 12:6-8)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 12:14-27에서 보았듯이 서로에 대한 관계도 전달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우리에게 속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에 분열이 없기를 바라시고 지체들이 서로에 대해 같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고린도전서 12:25).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을 그와 그의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훈련해야 합니다(에베소서 4:12). 그리스도는 성장에 대한 자극을 제공하지만, 몸의 머리와 그 지체 모두 신체적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에베소서 4:15-16). 신체 이미지는 역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도구로 작용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에베소서 4:19, 골로새서 2:19). 교회에 대한 성경적 그림은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 가장 친밀한 그림을 사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시작하시고,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죽음으로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의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입니다(에베소서 5:25). 이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지만 우리의 책임을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처럼 말합니다(고린도후서 11:2).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고린도인들을 순결하게 그분께 바치려고 합니다.

경건한 질투심으로 바울은 독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순수한 헌신에서 영적 간음으로 유혹받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고린도후서 11:3). 대신 신부가 결혼 생활에서만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도 사랑하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에베소서 5:23-24). 요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남편을 위해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는 구약성경의 그림을 바탕으로 합니다(이사야 61:10). 요한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애정 약속의 성취를 묘사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결혼식에 대한 웅장한 기대에 하늘에서 기뻐하며, 그 앞에는 즐거운 결혼 만찬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이 왔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복이 있나니 , 계시록 19:7-9. 요한은 19:6-8의 혼인 이미지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궁극적인 결합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인용문, 나는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2-3.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배경으로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16과 17. 바울은 영이 그리스-로마 성전에서 신이나 여신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6:19과 20, 고린도후서 6:16, 에베소서 2:19-22를 포함하여 교회를 성전으로 다루는 구절에서.

교회를 성전으로 다루는 구절들, 고린도전서 6:19-20, 고린도후서 6:16, 에베소서 2:19-22.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교회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성전은 역동적이고 유기적이며, 우리 눈앞에서 건물이 성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안에 개별적으로 거하신다고 확인하지만, 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들 안에 공동체적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삼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에베소서 2:18). 베드로는 또한 교회를 성전,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로 모신 살아 있는 성전으로 제시합니다(베드로전서 2:4). 예수께서 자신을 모퉁잇돌로 언급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마태복음 21:42에서 시편 118:52를 비교하세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초석이라고 부르셨고, 건축자들이 그를 넘어뜨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거부한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42에서

시편 118:22.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초석으로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2:6~8.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로 제시합니다(4절).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영적 삶의 근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3, 1:23. 베드로는 돌 이미지를 하나님의 백성까지 확장합니다. 살아 있는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살아 있는 돌이며, 그분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2:4, 5.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사용하여 건물, 즉 영적 집을 짓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영적 집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신자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5절. 베드로는 교회를 유기체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3.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이다.

교회는 또한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이며,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화해는 새로운 인류의 창조입니다. 우리의 평화인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고, 하나님은 두 개의 분열된 민족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창조 언어를 사용하여 교회를 인간이 되어야 할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13~16.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주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오셔서, 그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는 사람들을 같은 형상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인류이며,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15, 에베소서 4:13과 24. 에베소서 2:15, 에베소서 4:13과 24.

교회는 이미 새로운 인류입니다. 에베소서 2:14-18. 그러나 ...에 도달하는 것은 성숙한 인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13.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적 화해의 목적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의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창조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미 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교회는 아직 오지 않은 궁극적인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 우리는 새 창조의 진정한 현실이자 앞으로 올 더 많은 것의 선취입니다.

있어야 할 방식을 엿보고 , 우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엿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성경적 그림, 신약적 그림들을 엿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덕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입양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3, 요한 1서 3:10. 그러나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한이 높이듯이 그분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인용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보십시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3:1.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여 우리가 아들이로서의 입양을 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4, 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죽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15, 17. 갈라디아서 4:6, 7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21~23.

게시록 21:3. 저는 이미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무시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 가르칩니다.

글쎄요, 그게 무슨 가르침인지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게 신자들에게 속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왜 서로 다투고 싸우느냐고 말해요. 터무니없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자의 생각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3:20.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이든 아폴로든 게바든, 베드로든, 세상이든 세상이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현재든 미래든 .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상은 우리의 것이니라.

지금은 약속의 형태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속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할 것이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미 우리에게 속해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와의 연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적으로 드러나고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양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구히 연결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줍니다.

야고보는 교회를 영적인 가족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랑과 진실, 그리고 봉사가 구성원을 표시하는 가족 같은 관계의 공동체입니다(야고보서 1:18-27). 야고보는 1:2에서 5:19까지 형제 자매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묶여 있으며, 이 가족이 모여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가족으로 교회를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진실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창세기 17:7).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들에게 맹세하고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합니다(레위기 26:12).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예레미야 31:33).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 약속을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합니다(히브리서 8:10).

이스라엘은 주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이사야 5:1-7. 교회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1-8. 이스라엘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16.

베드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묘사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백성,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은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자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9, 10. 그러므로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회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동일성이 아닙니다. 바울은 민족적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미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민족적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11:25-32.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그의 교회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고, 구원하고, 보존하고, 온전케 하는 데 은혜로운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와는 별도로 구원을 위해 우리를 택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9, 10.

그것은 그의 목적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그의 목적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베드로전서 1:10. 그는 영원한 시대 전에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요 10:14-18). 그는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간직하십니다(롬 8:35-39). 결국 그는 교회를 완전한 거룩함으로 자신에게 바치실 것입니다(에베소서 5:27). 티나 주름이나 다른 어떤 것도 없이, 그의 아름다운 신부, 거룩한 신부에게 다른 어떤 흠도 없이.

교회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합된 백성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백성을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6:19, 20, 그리고 단체적으로, 고린도전서 3:16, 17에 거합니다. 영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11.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 고린도후서 12:9, 에베소서 6:10.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

:8, 고린도후서 12:9, 에베소서 6:10.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
선교에서 섬기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인용문 닫기, 요한계시록 21:3. 오직
여기서 하나님은 복수형 백성을 사용하시며, 인종적 다양성이 우리를 그의
마지막 백성으로 특징지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으로 교회의
신약 구절에 대한 우리의 강의가 끝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교회 교리와 최후의 일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2, 교회의 핵심 구절과 그림입니다.